

100살의 아기 향나무

군위군 산림조합장 | 최 규 종

대구에서 안동방향 고속도로를 타고 50여분 달리면 군위인터체인지에 도착하게 된다. 삼국유사 고장답게 대형 책자의 조형물이 일연스님을 연상케 하는데 전형적인 농촌풍경이 여행객을 맞이하는데 여기서 약 20여분 가면 소보면 달산리 소재 법주사에 이른다.

이 사찰은 신라 소지왕 15년(493)에 창건된 사찰로, 고려 보조국사 지눌이 머물기도 했다. 몇 번의 중창불사를 하였던 곳으로 옛 보광명전 천정에선 묘법연화경 사경이 나왔으며 주불인 아미타불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안 되는 목불이다.

사찰 뒤편에 보광전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앞의 오층석탑은 높이가 3.56미터로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27호로 지정되어 보존가치가 뛰어나 국가 문화재의 지정이 요구된다. 바로 탑 옆에 마치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듯 생기 넘치는 향나무가 있는데 이향나무가 100년이나 되었다면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. 그러나 이 지역 주민의 증언이나 사찰 주지 스님의 말씀으로 보아 분명 100이된 향나무인데 왜 그렇게도 키를 키우지 않고 몸집을 작게 하려고 할까? 그래서 이 나무는 분명 부처님의 영험이 있는 나무가 아닐지 싶다.

100살이나 되었는에도 아기나무이고 육문 현 주지스님이 15년 전 입문 시나 지금이나 항상 탑 높이 보다 키가 낮고 몸집도 그대로 라고 말했다. 이 향나무는 부처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스스로 낮은 자세를 가지고 생기는 너무 왕성하다. 그래서 용트림을 하면서 까지 탑 높이 보다 낮게 살고 있다.

우리인간이 이나무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. 높은 지위를 탐내지 않고 자연과 어울려 더불어 살면서 말없는 이 아기향나무는 산자수명하고 태고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법주사에서 만날 수 있다. 아직 사람의 발자취가 많지 않은 이곳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한번 가볼만한 곳이다.

